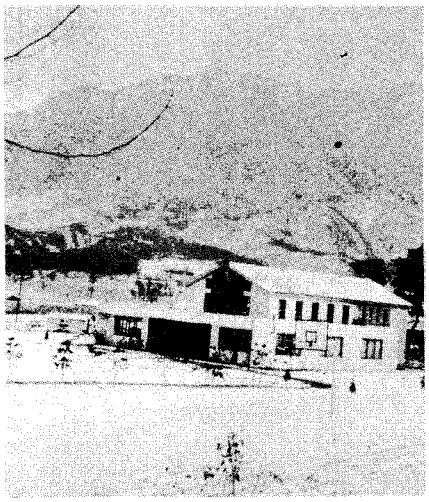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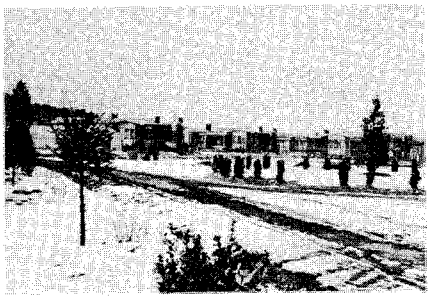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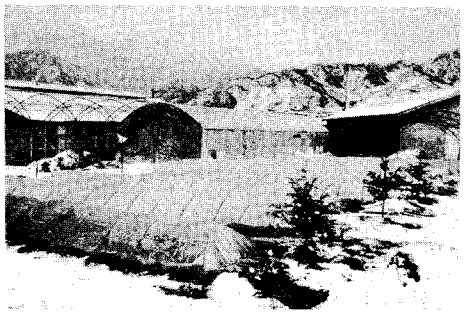
카메라 르뽀

선린촌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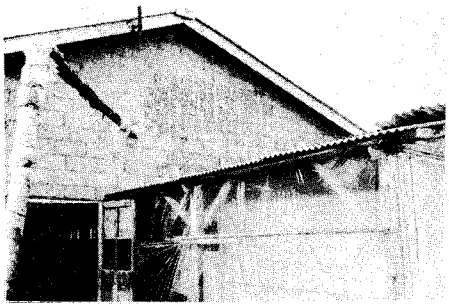
○…백설이 아름다운 선린촌의 이모저모를 돌아본다. 오늘날 협동양계단지로서 대표적인 선린촌은 13만 3천수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라 한다.
(사진左는 본부사무실겸 교회당
下는 문화주택이 인상적인 제 2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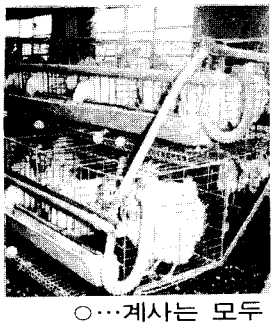


○…한겨울인데도 비닐하우스에는 봄이 화창하다. 이들은 다각적인 영농방법으로 오늘을 굳히며 보람을 찾는다.

○…선린촌은 기업양계로서 아프터·써비스에도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드리는 견고하고 아담한 선물상자가 이의 일면을 보여주는듯.



○…양계를 성공적으로 달성시키려면? 보다 세심한 관리요강을 계사벽에 다짐해 놓았다. 앞의 비닐하우스에는 자가용차가 그들의 수준을 엿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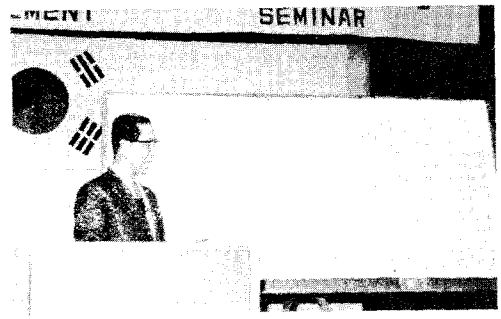
○…계사는 모두 모터를 이용한 자동급수로 능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한다.

(화보내용 업계동향참조)

사료공장 경영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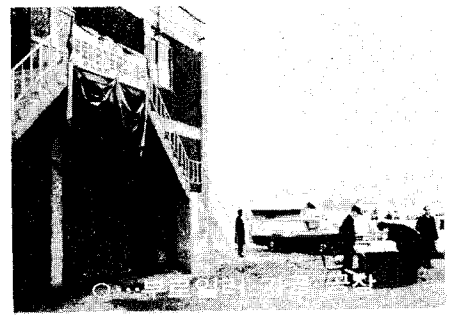
○…지난 2월 13일 KIST에서는 한국배합사료협회와 한국가금협회, 미국사료곡물협회 공동주최로 사료공장경영세미나가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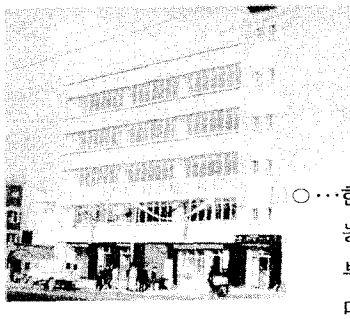
○…이날의 강연회에는 각계의 인사가 모여 성황리에 끝났다.



○…한국가금협회에서 실시한 제2회 육용계 능력검정결과가 오봉국박사에 의해서 발표되고 있다.

종합농장으로 발전하는
☆ 영육농장 ☆





○…한편 같은 2월13일 종합농장 영육농장에서는 종합양계센타의 낙성과 부러일러 가공공장 및 Y. Y. 치킨 직매장의 가동과 개장을 하여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화보내용 업계동향 참조)

○… 1일 12,000수의 부로일러를 완전처리하는 부로일러 가공공장은 최신시설과 위생처리를 자랑으로 하며 이 공장의 생산품은 대왕코너의 Y. Y. 치킨 직매장에서 판매된다.

☆ 현지르뽀 ☆

선린촌을 찾아서

71. J.O.

◇ 취재부 ◇

○……봄눈이 내리는 가운데 선린촌을 찾는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모범 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선린생산……○
○……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경기도 신장에 자리잡은 제……○
○……2농장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지난밤 많은 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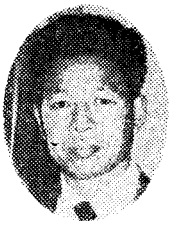
간밤에 이번 겨울들어 보기드물게 많은 눈이 내려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길을 따라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에 자리잡고 있는 선린촌의 제2농장을 찾았다.

서울 중앙시장에 소재한 직매소에서 최 동필 상무의 안내로 찾은 선린촌은 계획정리된 질서정연한 계사와 어느 도시에 갖다 놓아도 손색이 없을 듯한 문화주택들로 초행의 기자는 탄성을 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탄성을 발하도록 잘 꾸며진 농장을 누가 일으켰으며 그 정신적인 힘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가슴이 설렘을 느끼며 지난밤 내린 눈으로 하얀 마을 입구를 들어선다.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현재까지

잘 정돈된 사무실에 안내되니 선린촌의 원로이시고 전무로 수고하였다는 이 종우씨를 소개받았다. 이 종우씨는 본 선린촌의 개척자적인 분으로서 현재의 조합장인 최 문환 목사와 더불어 일해 오신분이라는 최 상무의 소개말씀이었다. 이 종우씨로 부터 선린촌의 발달과정과 현황등을 알아본다. 선린촌의 역사는 1952년의 동란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며 원래 최 문환 목사는 학생시대 부터의 꿈이었다는 「한국의 농촌의 빈곤타파」를 부르짖고 종교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으로 낙동강 연안의 사상이라는 곳에 하천 부지 7,200평을 구입하여 2년간 갈밭을 개간하여 축산과 농사를 하였다.

「최조합장님의 이상은 '유토피아건설'에 있었고 이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가끔 지탄을 받는데 그 이유는 교리대로 생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은 경제적으로 교인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데 있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농촌이 만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책적 빈곤보다 농민들의 정신적자세와 협동심의 결여에 있다고 보고 선린촌의 첫 삽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종우씨〉

이후 1954년에 서울로 상경하여 현재의 성동구 길동에 17,000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닭 700수와 약간의 가축으로 농장을 시작하였다. 이때 최 문환목사가 협동사업을 시작할 것을 역설하였으며 소비조합을 시작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이 뒤에도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원래의 자본력이 미약했던 관계로 기본 식생활 해결이 힘들 지경이었다고 이 종우씨는 회상한다.

이 종우씨는 협동사업도 어느 정도의 바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같았다고 하며 「그 때의 양계수준은 세대당 50수~200수 규모이었는데 사료를 공동구입해도 기술이 낙후하고 자본이 산란기에는 어느정도 회전되어도 환우기에 들어서면 닭 팔아서 생활에 충당해 버려 원상으로 돌

아가 버리는 기간이 5~6년 반복되었읍니다.」

이후 1962년에 신용조합의 설립이 최문환목사의 강력한 주장으로 63년 3월에 실현된 후 현재의 선린촌을 향해 발전하기 시작한 셈이란다.

1964년에 2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신용조합이 1967년 말에는 160만원에 이르는 등 순탄한 발전을 거듭하고 67년초에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생산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때의 양계규모는 10,000수로서 생산조합의 설립원인이 그 당시에는 아주 불안하였던 사료의 구입 중간이익의 배제 등이었다고 한다. 약간의 반대도 있었지만 각 직원들이 반년이상 봉급과 침식을 외면한채 일선에서 뛰니까 사료 약품 판매면에서 적지 않은 직접 이익을 보았고 이 때부터 선린촌의 발달은 국내의 양계붐과 더불어 가속화 되었다고 하겠다.

처음 시작할때의 애로점은 경영기술의 미비와 장부정리의 서툴음이었으며 이제는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제 궤도에 올랐다고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현재의 선린촌의 규모

선린촌은 천호동에 소재한 2만평 규모의 제 1 농장과 신장의 4만평 규모인 제2농장, 광주군 초월면의 2만평 규모의 제3농장과 서울 중앙시장에 위치한 직매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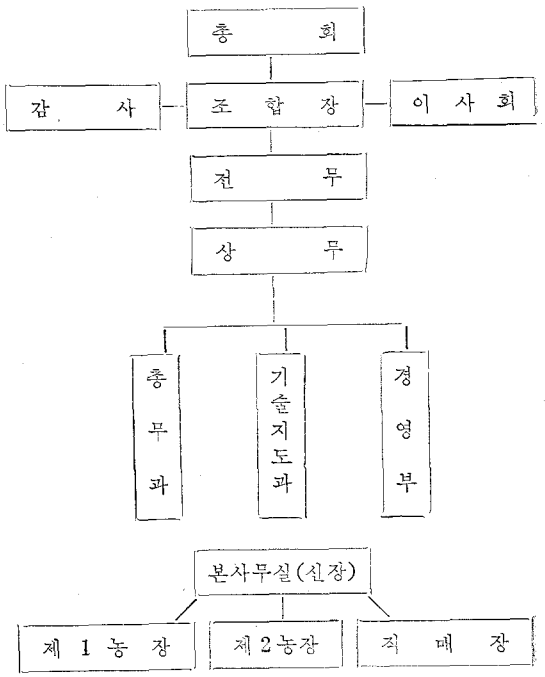
67년에 27만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생산조합은 70년에는 1,150만원의 예산 규모로 발전하였고 12월31일 현재 70여 세대의 조합원이 133,462수의 닭을 사육하는등 대규모로 발전하였다. 70년도의 사료출고액은 약 1억3천6백만원, 선린직매소를 통하여 출하된 계란의 출하액은 약 1억1천7백만원이라 하니 소비되는 사료의 양만해도 년간 약 4,500톤 정도인 셈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달걀만해도 3만개에서 7만개라고 하며 이들이 모두 직매소를 통해 도매상을 거쳐 소매된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

선린촌의 조직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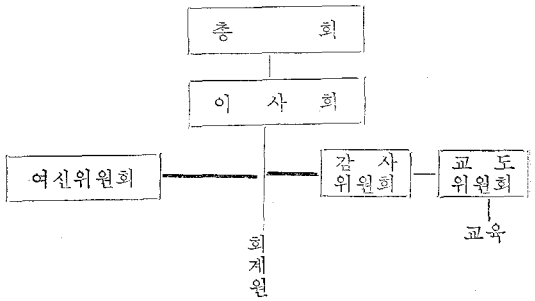
선린촌의 조합운영은 그간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능률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였다.

선린촌은 신용협동조합과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조직체계는 별표와 같다. 신용협동조합은 협동사업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협동운동이라 하며 이 종우씨는 「면밀한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경비의 낭비를 막고 조합원이 규칙적인 저축을 하고 대부에 있어서 전조합원의 신용을 얻음으로서 지금은 기본총자산이 32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조합원 1인당 대부한도액이 15만원으로 농협의 대부한도액 5만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자산이 450~500만원이 달성되리라 보며 3년 이내에 1천만원을

생산자 협동조합의 체계도



신용협동조합의 체계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조합원의 자금애로는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현금자본 없이도 앞으로 선린조합원은 양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70년에 신용조합에서는 이익을 24% 배당하였다고 하며, 이는 은행저축을 능가하는 것이라 하겠다. 조합원에의 대부는 작은 금액의 대출시에는 10개월 할부상환을 하고 8만원이상일 때에는 20개월 할부상환하게 된다고 하며 이 조건만 보아도 「조합원 자신의 조합」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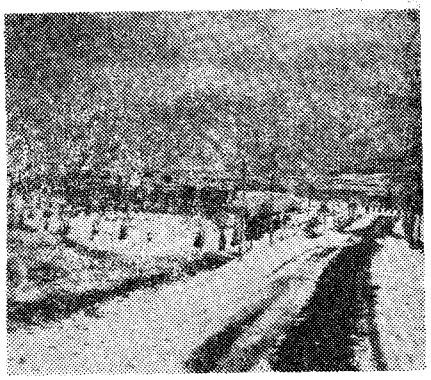
생산자 협동조합은 사료와 약품의 공동구매, 기술지도 담당의 기사가 사료배합비를 결정하여 생산공장에 의뢰 감독하고 직매장을 통한 생산물의 처분 기타 양계 건축물 자재 구입등의 일을 하고 있다. 모든 원료나 생산물은 조합자체의 트럭과 삼륜차 2대로 해결하고 있다고 하며 창문밖으로 사료를 나누어 주고 있는 트럭을 가리켜 보인다. 사료의 공급이나 계란의 수집은 차량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면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도 능률화를 위한 선린조합의 노력하는 일면이라 하겠다.

조합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3인의 감사회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경영진으로는 조합장 1명 전무1명 상무 1명 기사 1명 과장 기타행정 경리직 7인 운수직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 주안점은 첫째 구입, 판매, 수송, 기술등 모든 문제는 조합에서 일체적으로 자체 해결하고 둘째 사료 구입액의 4%는 선린촌의 마을 사업을 위하여 회비로 제공한다는 점이라한다.

사료문제는 조합기술부에서 만든 배합비대로 공장에 파견 주재하는 기사가 생산 감독하고 있다.

생산물 판매는 매일 아침 8시까지 개인계사입구에 포장된 상품을 내어 놓으면 조합차량이 자동적으로 선린하치장(직매장)으로 보내게 된다. 단지 조합에서 배부된 등급표를 계란상자에 부착하여 시장 출하 이후의 모든 문제를 생산자가 책임지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나누어진 계란은 조합에서 재평량하거나 검수하는 일이 없이 조합원의 양심에 맡기고 만일 구입하는



〈선린촌 전경〉

사람이 항의 해올 경우, 직매소에서는 하여 생산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그러 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선린 계란

등 급	
수 량	
생 산 일	월
생 산 자	

선린생

선린촌의 등급표

계란의 등급은 특란이 62g이상 대란 중란 47g이상 소란 43g이상 경란 42g 겨지는데 선린촌에서는 아마 국내에서 계란을 과학적으로 등급화 하여 판매를 곳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신용 신용 그리고 정확한 거래

최상무는「선린촌이 성공하게 된 것 장님의 이상을 현실화 한데 있겠읍니다 으로는 '유토피아'는 하나의 꿈이지 현 다고 생각합니다. 선린촌은 이 정신적 이어받으며 또한 현대의 기업적인 경쟁 한 고려 없이는 조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감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자랑스 을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린 유통과정과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자체 전할 수 있는 체제와 조합원들간의 협동 든 일을 하고 있읍니다. 조합을 운영하 이윤의 배제와 생산 기술 판매를 모두 자라는 못토로 하고 있으나 제일 중요한

수 있겠지요. 물론 우리의 애로점이
나.
우리조합이 이렇게 성장한 원인으로
를 실시한 점을 들 수 있겠읍니다.
규화 하여 가격을 무게로 정하게 되어
생산자가 아무 이의 없이 안심하고 거
읍니다. 이 일은 물론 각 조합원 개
해서 조합측에 일임해 주므로 조합측
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해서 조합원은 전적인 책임을 지죠. 그
은 공개적으로 고시하여 객관적으로
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가격 고시는
물가조사부와 한국가금 협회에 보고되
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매일
격 문의에도 응하고 있읍니다.
생산자는 항상 자신의 생산물을 신선
공급하여야 하는데 본 농장에서는 24
에 완전히 소비되어 계란의 등급화와
질을 높이 인정받고 있읍니다. 이 품
확한 사양관리와 자체에서 검토하여
사료급여등의 보조요인이 따르겠지요
비자 즉 구매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
를 한 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찰
나. 의상거래는 전 조합의 자금운영 계
을 줄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결손금
많이 나타나는 경우 그 문제는 심각하
니다. 지방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대개
로서 화주가 중간에 끼어 생산자와 도
결하여 주는데 여기서 거래가 실패하
·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조
째인 체제를 유지하며 모든 일을 해결
경영자는 관리에 대하여 큰 신경을
경영계획에 중점을 두고 자기 사업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도 조합측에서 관리기술세미나를 개최
또 자체기술향상을 위하여 목우회(牧
서클을 조직하여 연구하고 있읍니다.
성공하려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생산물
조합측에 납품되어야 그 조합의 운영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 해
조합의 성공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집단
업성을 유지하려면 또한 대량출하를 현
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신용있는 거래로 극복하고 있읍니다. 여름에는 계란이 귀하고 겨울에는 생산되는 계란이 흔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린촌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계란이 생산되므로 도매상들이 그들이 계란을 수입하기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계속 신용있는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앞으로는 1일 20만개의 계란소비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의 판매처리에도 낙관을 하고 있읍니다.」

젊은 엘리트로서 최 상무는 양계단지로서 만이 앞으로의 치열한 경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군소양계가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한다. 양계수수가 5만수 이상되는 곳은 반드시 조합결성이 필요하고 그들이 조합을 잘 운영해 나가므로서 사료공장, 계란도매상에 대하여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부당한 손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판로에 자신이 없을 때 조합결성은 무의미하거나 더 큰 금전적 손해를 자초하는 일일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적절한 판매조직과 경영 합리화」—양계가들이 부업내지 전업적 규모에서 기업적 규모의 양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강(江)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악착스레 벌어서 값지게 쓴다.

선린 협동촌의 조합원들은 대학교 졸업이 반이상이고 나머지도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상 이라고 하니 매우 높은 학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회원의 자격은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정조합원과 부근에서 선린촌의 체제를 이용하는 준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준 조합원은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는 점 뿐이라고 한다. 그들은 양계이외에도 고등원예, 채소, 과수등의 농업을 하며 보다 수익 높은 산업으로서 오늘을 계을러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최등필씨〉

이 종우씨가 참고로 보여주는 선린촌의 양계수수의 증가를 보면 별표와 같은데 눈부시게 발

전 해 온 선린촌의 역사를 함축성 있게 대변하여 주는 것 같았다.

선린촌의 년도별 양계수수

년 도	닭 수 수
1954	750수
59	1,264
60	374
65	3,650
66	19,164
67	26,030
68	40,160
69	79,230
70. 12. 31현재	133,462

선린촌에서는 자체의 기금 (사료구입액의 4%와 조합원의 자발적인 회비)을 마련하여 여러가지 사회사업과 자체의 질적향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58명의 나병 미감아를 국민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완전히 교육시켜 그들의 부모에게 돌려 보내준 영아원 사업이라하겠다. 이 사업은 아직 쾌유되지 못한 나환자의 자녀에게 대해서 재감염을 예방하고 한참 자라는 어린이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게 해주고 완전히 훌륭한 교육을 시킨후 쾌유된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선린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면도 있고 해서 카나다선교부와 협조하였으나 그후 완전인수하여 자체자금으로 성공시켰다 한다. 이 사업은 영아의 수가 줄어 들어 작년에 완전 해산하였다. 그리고 교육활동으로서 농민학원 5회, 기타 농사 강습 협동, 교육, 교역자 강습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자 협회의 기술강습회때도 선린촌에 찾아와 기술연마를 한다고 한다.

이외에 자치사업으로서 현재 건축된 문화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택 협동조합을 만들어 그들의 주생활을 해결하였고, 70년부터는 도서 구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국 문학전집과 세계문학전집을 수십질 구입하여 조합원의 정서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수세식 변소와 TV를 가지고 사는 양계가를 보고 단순하게 감탄하던 기자에게는 따끔하리만큼 「어필」해 오는 그 무엇이 있었음을 느낀다.

이 종우씨는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
여 인근부락의 부녀자들에게 위생과 문
걸쳐 지도하겠으며 또한 마을의 자체
락하는 한도에서 협동교육을 가급적
내에 시작하려 한다고 힘있게 강조하였

마렉병등의 질병은 단지의 큰 문

근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양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마렉병은 선린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종우씨는 작년부터 병아리의 150
있어 5%~30%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당수가 마렉병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해는 금년에 더욱 심할 것 같아 걱정
며 그 대책을 묻는 기자에게 「단지내
육추를 해오던 것을 멀리 떨어진 곳에
만들어서 격리 육추를 한 후 조합원에
해주는 방법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외
서 공동방역을 강화하고 쥐잡기와 백
용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

기자가 찾아보는 양계가들의 대부분
에 큰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의 빠른
실화되기를 그 때마다 간절히 염원해

선린 마을을 나서며

「착한 이웃」이라는 뜻의 선린 마을을
기자는 미국이나 유럽사람들이 와서
다는 선린촌의 문화주택을 눈여겨 본다
는 것은 무척 부러운 일이다. 더구나
움을 사양하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쌓
임에랴. 「양계단지의 성공은 확고한 기
신념과 방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달씀과 이 종우씨의 「유토피아론에서
의 선린촌의 역사를 마감하며 두분사이
적 차이를 잇는 어떤 사슬 같은 것이
것 같아 기자는 흐뭇한 마음을 가눌길
계사옆에 자가용을 대고 양계하는 양

이 간단한 사실(그러나 부러운)에 놀
그 성공의 뒤안길을 캐 보려는 기자의
무 무디지 않을까 걱정하며 귀로에 오른